

2026 Holy Week 특별새벽기도회

복음으로 살다

: 월화수목금 실천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 1:27)

26.8.31-9.4

새벽5시 / 금요기도회



2026년 홀리위크 기도제목

-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 복음이 머리로만 머물지 않고, 매일의 삶(언어·선택·감정·시간·용서)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영적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

-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갈망함을 주옵소서.
- 홀리위크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직장,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담임 목사, 교역자, 종직자,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 홀리위크 기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 및 전도

-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선교 기관, 미자립 교회, 단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우리 교회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 말씀을 의지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옵소서.

지역

- 울산과 동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 울산과 동구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 울산과 동구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 울산과 동구 지역에 무속신앙, 이단과 사이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가운데 신앙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잘 전수하며,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되는 평화통일의 길이 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 이 땅이 악한 문화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음란과 탐욕,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다

: 월화수목금 실천편

사랑하는 방어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2026년 가을 '홀리위크(Holy Week) 특별새벽기도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01주년을 맞이하여 “복음으로 살다 : 다시 100년, 이제는 삶으로”라는 표어를 품고 달려왔습니다. 복음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박제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 한복판, 삶의 가장 치열한 자리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며, 감정이 다스려지고, 시간을 건져내며, 마침내 원수까지 품어내는 구체적인 ‘삶의 혁명’입니다.

이번 가을 홀리위크는 상반기에 선포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손과 발로 복음을 살아내는 ‘실천 편’으로 모입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영적 배터리가 완충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 1:27)”

삶으로

Kang Score

장진숙

세상의 부와 - 세상의 명예 - 세상 자랑 - 모두 내려 - 놓
 고 날구한 십자가 - 날쌌긴 보혈 - 주의 은혜를 - 깊이 생각
 합니다 - 나의 나된것 - 내모든것 - 다 거저받은 선물 - 내
 삶은 -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 - 네 나의 나된것 - 내모든것 - 다
 거저받은 선물 - 내 삶은 - 주신분께 다시 올려드리 - 니 - 나는
 삶으로 - 주님을 노래 합니다 - 나를 통하여 -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 나는 삶으로 - 주님을 예배 합니다 - 나의
 삶은 빛 - 으 로 사 용 하 소서 -

삶의 예배

Isaiah 6tyone

보여 지는 - 예배아 - 닌 - 마음 으로 드리는예배 -

노래 하는 - 찬양보 - 다 - 삶으로 고백 되는 예배 -

나를 위한 - 예배아 - 닌 - 주님 뜻을 향한 예배 -

내맘과 정성 - 다하여 - 서 - 주앞에 드려 지는 예배 -

주앞에 옆 - 드러 경배 합 - 니다 온전한예배
예배 합 - 니다 나의모든삶

1. D A/C# Bm7 E7
- 내맘의예배 - 내모든것 받기 합당하신분 - 주앞에

2. D A/C# Bm7 E A
- 나의모든뜻 - 말씀앞에 순종하-는삶의예배 - 드리기원-하네

언어의 혁명

| 약 3:1-12 |

혁명은 급진적인 단어다. 기존 것을 다듬고 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판 전체를 뒤엎고, 뿌리부터 새롭게 바꾸는 게 혁명이다. 복음으로 사는 실천 편 1번이 언어의 혁명이다.

1. 언어는 인생의 핸들이 되어 _____ 을 결정짓는다.

(약 1: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1) 말의 재갈

(약 3: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2) 배의 키다

(약 3:4)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3) 작은 불꽃

(약 3:5)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2. 언어는 _____ 을 움직인다.

(약 2:12)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3. 언어를 _____ 삶을 바꾸라.

(약 3:7-8)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실천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의 혁명이다. 세상의 오염된 언어 체계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야 한다.

9월 1일 화요일 새벽

선택의 기준

| 창 13:10-13 |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우리 인생이 된다. 그렇기에 선택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1. 눈의 욕망이 아닌, _____ 으로 선택하라.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2. _____ 중심, _____ 중심으로 선택하라.

(창 13:12,18)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3. 내가 _____ 이 내 미래의 열매를 결정한다.

(창 13: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땐 가라지 씨앗이나 알곡 씨앗이나 구분이 안 된다. 싹이 터도 비슷하다. 그런데 가을 수확 철이 되면 확실히 구별된다.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남는 건 알곡이다. 오늘 선택의 씨앗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삶과 가정의 거둬들일 열매를 결정한다.

9월 2일 수요일 새벽

감정의 정복

| 빌 4:6-7 |

감정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감정이 변질된다. 위험 요소가 된다. 분노로 폭발한다. 우울로 가라앉는다. 감정이 일상을 무너뜨린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을 정복해야 한다.

1.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의 뿌리인 _____ 를 직시하라.

(빌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2.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_____ 로 배출하라.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3. 내 의지가 아니라, _____ 이라는 군대로 마음을 방어하라.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린 한 주간 복음으로 살아내는 실전을 연습한다. 입술의 언어를 바꾸고, 눈앞의 유혹 대신 영적 안목으로 선택하며, 내 안의 요동치는 감정을 하나님의 평강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람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평강으로 막아달라고 구해야 한다.

시간의 청지기

| 엡 5:15-17 |

복음의 합당한 삶을 위해 입술을 다스리고, 안목을 다스리고, 내면의 감정을 다스린다. 이 모든 게 실제로 드러나는 건 하루 24시간, 삶의 시간이다. 성경은 시간의 문제를 많이 다룬다. 예를 들면 잠언에 보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관한 말씀이 촘촘히 박혀 있다. 우리는 시간을 다뤄야 한다.

1. 세상의 _____에 밀려 살지 말고, _____ 삶을 점검하라.

(엡 5: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2.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을 _____를 치르고 건져내라.

(엡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3.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일정표 맨 위에 _____을 두라.

(엡 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린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늘 시간을 핑계 삼는다. 시간에 쫓겨 산다. 시간에 밀려 산다. 아니 때론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시간의 청지기로 사는 삶이다. 성령께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세월을 아끼라.”

용서의 능력

| 마 18:32-35 |

고(故)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신앙의 바로 미터는 용서이며,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이 용서의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드러난다.” 용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최고봉이다.

1. 용서란 _____가 필요하고, _____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마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엡 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 용서하지 않으면 _____이 감옥에 갇히기에, _____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

(마 18: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인간의 본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용서보다 되갚음을 좋아한다. 누가 내게 말로 상처를 줬으면 기억했다가 한 마디 싸붙여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다. 우리 모두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다. 이 은혜 의식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각인시킬 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복음으로 사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 엡 5:18-21, 갈 5:22-23 |

수억 원이 넘는 최고급 자동차도 연료를 넣지 않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복음으로 사는 실천 편, 언어, 선택, 감정, 시간, 용서, 이 모든 삶의 순종도 우리 안에 영혼의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손발로 나타나지 않는다.

1. 복음으로 살려면 오직 _____ 해야 한다.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 성령은 _____ 인 _____ 를 낳고 유지시킨다.

(엡 5:19-21)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은 _____ 이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복음으로 살기 위해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이끄신다.

